

# 목포시, 3·1절 기념 목포근대역사1·2관 무료 개방

### 2관서 목포독립운동 재조명하는 특별전 전시도

### “독립 향한 뜨거운 열망 있었음 느껴보는 계기”

목포시가 오는 3월 1일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목포근대역사1·2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목포근대역사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이지만 3·1절인 오는 1일은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특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목포근대역사관 2관 2층에서 3·1운동을 기념하는 ‘영

웅, 그 날의 기억을 걷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다.

특별전은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목포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관련 영상과 유물을 전시해 목포의 근대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목포근대역사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목포에서도 독립을 향한 뜨

거운 열망과 치열함이 있었음을 느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구)목포일본영사관(사적 제289호)을 목포근대역사관 1관으로,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남도 기념물 제174호)을 목포근대역사관 2관으로 각각 활용하고 있다.

한편 시는 목포근대역사관 1관에 혼합현실(MR)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실감 프로그램 제작을 진행 중이다. 시는 역사의 현장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물 및 방공호, 근대역사문화공간 등에 대한 혼합현실을 통해 큐레이팅(curating, 정보를



수집·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방식으로 역사

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기자

## ‘군민이 행복한’ 영광군

### 인구 5만 4천명 지키기

### 인구정책 3개 분과 80개 세부사업

영광군은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인구 5만4천명 지키기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 늘리기 홍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 및 혜택을 종합한 홍보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인구관련 시책을 한눈에 담은 현수막도 읍면사무소, 종합민원실, 보건소 등 군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군은 유관기관·사회단체의 영광군 인구 5만4천명 지키기 참여 독려에도 힘쓴다. 영광군에 소재를 둔 기관과 단체에 인구정책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내 직장 주수갓기 운동’ 기관·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관외에 주소를 둔 직원들의 전입 독려를 추진한다.

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며, 3년 차인 올해도 3개 분과 80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제고하고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문화 분과 사업으로 부모와 아이의 웃음이 묻어나는 출산·돌봄·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인제육성장학금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년의 희망이 피어나는 영광군을 위해 일자리·청년 분과 사업으로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사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등을 시행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조성과 문화활동 지원에 힘쓴다.

마지막으로 정주여건 분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복주택 건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급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방방곡곡 생기있는 영광군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목표로 전국 최초로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영광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의 인구감소세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장려를 위한 맞춤형 시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 추진

### 면적 10ha 총사업비 30억 투입

무안군은 전라남도도와 함께 도청사 남악호수 일원(삼향읍 남악리 1000번지) 면적 10ha에 총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녹색문화숲 확충을 목표로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은 생태모텔숲, 상록숲, 가족체험숲, 숲속 놀이터, 물의정원, 수변생태원, 폭포 및 계류조성, 모두누리분수, 빛나무수변길 등 다양하고 풍부한 테마가 있는

명품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청사 남악호수 일원은 도청을 찾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지만 특색 있는 숲과 텃새, 녹음이 있는 산책로 등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접근성이 좋은 도청 내 호수 주변을 정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숲으로 조성하고 남악중앙공원, 도청, 오룡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도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암군충박물관,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조성 사업 선정

### 전남 유일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 쾌거

영암군은 영암군충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충박물관은 등록 사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공모 확정된 17개소 중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영암군충박물관 김석 관장은 “기존 박물관의 전통적인 운영방식(수집, 보존, 전시)에서 벗어나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콘텐츠와 파종류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지원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관심제고 및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아름다운 시도” 미국 언론도 반한 신안 ‘퍼플섬’

### CNN·폭스뉴스 소개

세계 최대 언론사 CNN에 이어 폭스뉴스도 전남 신안의 ‘퍼플섬’을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8일 CNN은 안좌면 반월도를 ‘사진작가들의 꿈의 섬’이라고 소개하면서 8장의 사진과 함께 ‘퍼플섬’의 여행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섬의 개관과 보랏빛 섬으로 재탄생한 각 과정을 설명하고, CNN은 섬의 재탄생에 대해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시도”라고 규정했다.

최근 관광객 증가를 볼 때 그 시도가 성과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CNN이 폭스뉴스도 19일(현지시간) ‘퍼플섬’의 독창성을 조명했다.

폭스뉴스는 ‘한국의 반월도는 퍼플섬으로 만든 후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핫토픽’란에 올렸다.

‘퍼플섬’이 코로나19로 국제여행이 제한되면서 수천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당일 여행지로 인스타그램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5년 도부터 보라색의 천국으로 시작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퍼플섬’은 지난해에는 독일 최대 위성TV 방송 프로제벤(Prosieben)과 홍콩의 유명 여행 잡지 U magazine에도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 신안

군은 지난 2007년 퍼플섬교 부교를 주체로 주민들과 함께 ‘퍼플섬’을 조성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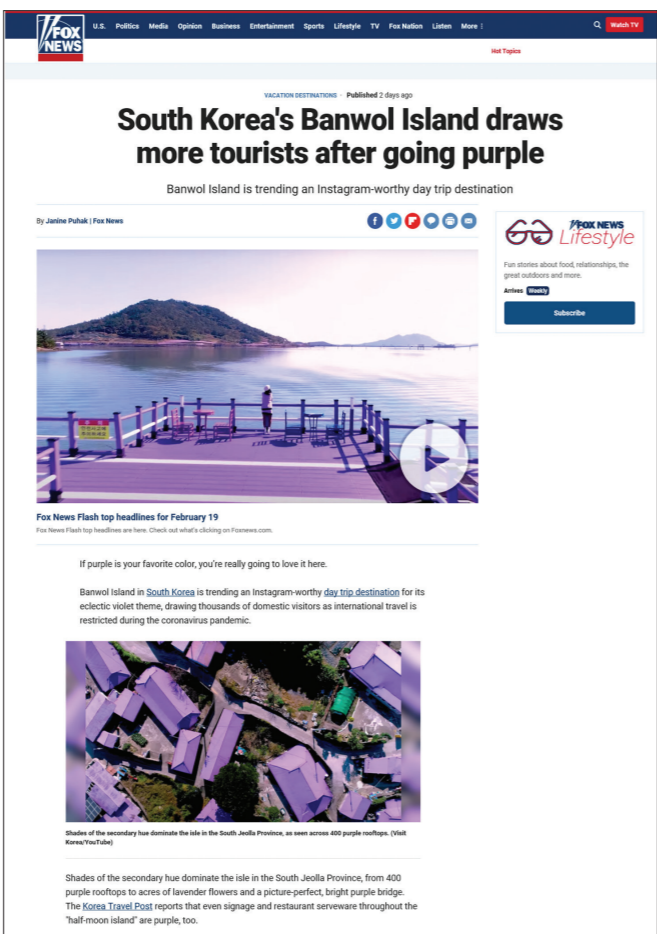
섬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와 풀밭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보라색 섬으로 컨셉트를 정했다.

목교와 해안 산책로의 라벤다·자목련·수국, 마을 지붕, 작은 창고의 벽, 앞치마와 식기 및 커피잔까지 보라색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최초 섬 자체를 컬러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에는

페이스북 팔로워 약 180만명이 홍콩 유명 여행잡지와 독일인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다”면서 “세계 최대 미국 언론에서까지 보도되고 있어 퍼플섬(반월·박지도) 주민들의 노고가 빛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택주 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

